

# 호남-문재인 '국정운영 동반자' 관계 설정

## ■ '전폭적 지지' 광주·전남 대선 승리 견인

### 반문정서 딛고 60%대 득표율에 배려 '훈풍' 지역민 전략적 선택...5·18기념식 바로미터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향후 호남과 어떤 관계가 설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기대와 달리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에서 문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 만큼 과거와는 사뭇 다른 '훈풍'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대선은 호남민심을 양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의 대결이었기에 누구도 압도적인 득표는 예상하지 않았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호남민심을 나눠 갖되 누가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호남의 밑바닥 정서에 과교된 '반문정서'로 인해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는 안 후보에게 기울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9일 대선 출구조사 결과, 문 후보는 광주 59.8%, 전남 62.6%, 전북 65%를 각각 득표했다. 안 후보에 비해 2배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다.

이는 호남민들의 전략적 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막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도 뒤지며 3등으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자 당선이 확실시되는 문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는 전략적 선택이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호남에서 안 후보에 비해 2배가 넘는 지지를 보여 준 것에 대해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결국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가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만큼 새 정부 출범 후 호남을 꺼안기 위한 정책과 인사가 배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이전과는 다른 호남 배려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후 "내가 좋아서 지지했다, 이회창이 싫어서 지지했다"라며 호남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호남인사 확대 등이 겹치

면서 지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다. 지역민들은 이같은 행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호남의 서운함을 풀어드리겠다. 대통령이 되면 호남차별, 인사편중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 호남이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 역시 누누이 호남차별을 걷어내고 배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호남민들의 기대에 맞는 인사를 통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10일부터 공식업무를 시작한 이후 첫 번째 지방나들이가 오는 18일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있을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목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 5월 영령들이 헌법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도록 하겠다. 앞으로 20일 뒤 5·18민중항쟁 기념식에 19대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남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목청껏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내용을 호남민들과의 소통과 배려 및 화합의 메시지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서울=강병은 기자

## 새 정부 입각 가능 호남인물은 누구?

이개호·이용섭·김영록·신정훈·지병문  
송영길·강기정·박광온·임종석·김상곤

문재인 대통령 체제가 개막하면서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의 입각여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텃밭이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폭제 역할을 한 광주·전남지역 인사들이 새 정부 내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다만, 입각 폭과 어느 부처에 안배될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서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국회의원이 이개호 의원이 입각의 0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18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간판으로 홀로 당선되며 실력과 능력을 검증받았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 내에서 지역예선은 물론 각종 민원까지 도맡아 1인 17역을 토크해했다는 평가다. 당내 호남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의 위상도 한껏 높아졌다.

이 의원이 입각할 경우 농림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전남이 농도인데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어서 농림수산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이 의원의 농업과 수산정책

에 대한 남다른 해안과 경험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각에서는 이 의원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주무부서인 인행부에서 잔뼈가 굵었고, 전남도 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행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영남에 편중된 행정관료와 경찰인사 등에 대한 과감한 개혁으로 호남출신 인사들의 소외를 대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더문캠'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의 단장을 맡았던 이용섭 전 의원의 기용될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이 전 의원은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부총리로 내정돼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건교부장관과 행자부장관, 청와대 혁신수석을 맡는 등 친노그룹에서 신뢰가 높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총무부장을 맡았던 김영록 전 의원도 입각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해남·진도·완도에서 제선을 했던 김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완도 출신으로 평소 해

양수산정책에 관심이 많고 해수부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킬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나주 출신인 신정훈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역시 농림수산부 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전국농어민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을 맡았다. 당내에 전국 420만 농어민 계층을 대변할 전국조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가운데 그간 전국농어민위원회를 꾸준히 제안한 결과 당헌·당규에 관련사안을 반영시키는 특임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 등 농촌과 해양수산 공약대부분의 신 전 의원의 손을 거쳤다.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도 교육부총리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의 호남심크랭크인 '호남미래비전 네트워크'를 주도하며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더문캠'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고흥 출신 송영길 의원의 입각 가능성도 높다. 이번 대선승리에 공을 세웠다는 평가와 함께 총리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진 임종석(장흥) 비서실장과 상형실장을 맡았던 강기정(고흥) 전 의원, 김상곤(광주) 전 교육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이밖에 해남 출신으로 재선의원인 박광온(경기 수원 정) 공보단장도 언론관련 업무를 진두지휘하며 문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으로 평가되고 있어 입각이 유력시된다.

/서울=강병은 기자



## '호남총리' 누가 거론되나

김효석·전윤철·이낙연·이용섭  
김황식·김광두·진영 등 하마평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벌써부터 호남총리로 누가 임명될지 여부가 조미의 관심사로 대두했다.

보궐선거인 이번 대선은 인수위원회없이 선출된 대통령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새도 캐비닛(에비넷)' 구성작업을 진행했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당내제 하에서 연정과 협치가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정당과 정파인사를 일정부분 등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빠른 청문회 통과를 위해 국회 인맥이 탄탄한 정치인 출신이 중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호남총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인사가 반드시 중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후보시절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총리와 관련, "비영남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선기준으로 '대통령'을 제시해 당 안팎에서 호남출신 중도·보수 인사가 총리를 맡는 것이 유력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총리 후보를 두 명으로 압축한 상태에서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10일 취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명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김효석 전 의원,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이낙연 전남지사, 이용섭 전 의원, 김황식 전 총리,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진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가 호남출신인데다 중도·보수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김효석 전 의원은 문재인 대선캠프인 '더문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장성 출신인 김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장을 역임했고, 실용주의 노선에 기

반을 둔 민주당의 집권플랜인 '뉴민주당플랜'을 만든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당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도와 새정치민주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내는 등 한때 안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교육부총리직을 제안받았지만 고사하기도 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역시 '더문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목포 출신인 전 전 원장은 DJ정부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다. 참여정부에서는 감사원장을 지냈다. 자기 주장이 강해 '전팟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으며, 지난해 4·13 총선 공천당시 국민의당의 제안으로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낙연 전남지사 또한 강력한 총리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호남출신으로 거론되는 후보들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유력하게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현역 전남지사를 총리로 차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에 부딪혔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1기 총리보다는 2기 총리를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문캠'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의 단장을 맡았던 이용섭 전 의원이 기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경제부총리로 기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맡아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장성 출신 김황식 전 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설계한 나주 출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거론된다.

또한 전북 고창 출신 진영 의원 등도 보수진영 및 여권세력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강병은 기자

**싯! 입소문난 효소공 체험 3마리 토끼! 한 번에 잡는다!**

- 1) 면역력5배 증가!
- 2) 투명한 피부관리!
- 3) 쉽고 편한 다이어트!

**도심속에서 고급진 힐링을 체험해 보세요.**  
**효소, 편백, 허브의 뜨거운 만남!**

**소문난 효소공 5단계 체험**

1. 편백효소욕체험(100%미생물자연발생영)
2. 허브증기욕체험(10가지자연채취허브)
3. 편백 근·원격외선 반신욕체험
4. 바디프렌드마사지 체험
5. 편백건식 원격외선 족욕 체험 (작두통차, 감식초차, 각종 효소차 무료제공)

직장인을 위한 야간개장 시작!  
오전개장 오전 10시~6시까지  
야간개장 저녁 7시~12시까지 (효소목욕외 4코스, 12,000원)

힐나라 직장인

예약 062 372 5888 (토, 일요일은 3일전 예약)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건너편/ 상무전철역변 출구 통영사우나 2층

**솔밭가든**

**단체모임 환영**  
1층 대형홀 100석 / 2층 룸 완비

왕갈비탕 11,000원	예	솔밭정식 인당 20,000원
모듬쌈밥 10,000원	약	인당 35,000원
담양식돼지갈비 13,000원	제	해신탕 120,000원

늘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61)372-3391 대표자 정선철 주소: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695-1 (화순역 ~ 무등산CC 사이)